

# 전국 모범 사례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속도

### 마복·봉산·신용·운암산 4곳 토지 보상 완료 생태숲·휴식공간·묘지이장 등 본격 추진

전국 대표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9개 공원(10개 지구) 중 4곳의 토지 보상을 마무리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31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마복(18만2000㎡), 봉산(20만3000㎡), 운암산(28만4000㎡), 신용(5만9000㎡) 등 4개 도시공원 사유지 72만8000㎡의 보상이 완료되고, 소유권도 광주시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가장 면적이 넓은 중앙공원 등 9개 도시공원 전

체 788만3000㎡ 중 사유지는 640만3000㎡(81%)이며, 현재까지 보상 완료된 면적은 181만3000㎡(사유지의 28%)다.

광주시는 일곡·수랑·송암 등 3곳은 내년 상반기, 중앙·중의 공원은 하반기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국공유지 27만7000㎡를 포함해 668만㎡가 광주시 소유로 전년대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된다.

광주시와 10개 민간공원 추진자는 보상이 완료되는 공원으로 생태숲 복원, 휴게공간 조성, 단절

된 산책로 연결, 풍양저수지 수질개선 등 2022년 상반기부터 공원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 토지보상은 토지주와 사업시행자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3인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추진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등을 통해 토지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다만 "이번 토지보상 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비공민시설 면적(아파트 부지 등) 비율이 낮은 탓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들에게 적은 금액으로 보상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면서 "토지보상비는 광주시나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토지 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만큼 비공민시설 면적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상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비공민 시설인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김중호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 투명성,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지향해 추진된다"며 "공원 조성은 후대에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남는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위상 높은 김대중평화회의 세계 지도자·석학 36명 참여

'코로나19를 넘어 세계평화를 향하여'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한 2021 김대중평화회의가 국제학술 행사로서의 손색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 회의는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인 2023년 열릴 예정이다.

지난 26-28일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개최한 '2021 김대중평화회의'는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세계지도자와 석학 등 36명이 축하와 연사로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 프란티스코 교황,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등 국내외 지도자들이 서신과 영상으로 축하를 보내왔다.

기조연설은 사나나 구스망 톤티모르 전 대통령,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에릭 와이거트너 전 WCC 국제관계 집행위원장 등이 나섰다.

또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석좌교수, 베르너 페니히 베를린자유대 교수, 김희중 천주교광주대교구 대주교, 호프 엘리자베스 메이 샌트럴미시건대 교수 등 국제적 평화·인권 전문가 27명이 연사와 패널로 참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중 저장성 포럼 '탄소중립' 교류 강화

전남도가 중국 저장성과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산업 협력과 발전'을 주제로 제23회 한중 포럼을 지난 29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포럼에서 전남도는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 전남'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선도거점 육성 등 3대 전략과 추진 정책을 소개했다. 저장성에서는 저장성신에너지 투자그룹의 '에너지 기업의 친환경 저탄소화 추진 전략 및 방안'을 발표하고, 텐닝홀딩스그룹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텐닝의 사업 활동'을, 저장과학기술대 LHD해양에너지연구원에서는 '해양 조류 에너지 발전 연구개발 및 대규모 활용'을 각각 소개했다.

또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중국 저장성에너지그룹 기술연구원과 그린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김치축제 주한외교사절단 초청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29일 오후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린 제28회 광주세계김치축제 주한외교사절단 초청 광주김치 날들이 행사에 참석해 외교사절단과 김치담그기 체험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팬데믹 시대 한국 백신의 위상 홍보

### 화순국제백신포럼 4일 개막

대한민국 유일의 백신산업특구인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한국 백신의 위상을 한눈에 가늠할 '2021 화순국제백신포럼'이 오는 11월 4-5일 열린다. 포럼은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한국 백신의 위상'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백신 개발 권위자로 손꼽히는 제롬 김 국제백신협회(IVI)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내 백신 석학 5명이 연사로 나선다. 의료계, 학계, 기업계, 정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 1일차에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한국 백신의 위상과 동향을 전망하고 백신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국내 백신 석학들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세션이 열린다. 2일차에는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백신 프론티어'를 주제로 국제백신학회(ISV)

국제학술대회가 진행된다.

제롬 김 사무총장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 배운 글로벌 백신에 대한 교훈" 주제강연을 한다.

전문가 세션에서는 국내 백신 석학 4명이 주제 발표를 이어간다. 한이 김 라이트 펀드 대표는 "건강평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정재훈 가천대 학교 교수는 "COVID-19 장기예측에 따른 안전한 일상회복방안"을, 강창을 셀리드 대표는 "Ad5/35 키메라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에 기반한 효과적인 AdCLD-CoV19 백신"을, 성백린 연세대 교수는 "제조합백신 제조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춤으로써 신속하게 접종을 가능케 할 RNA 기반 사패론 원천기술"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2021 화순국제백신포럼 공식 누리집(www.hivf.or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2028년 COP 유치 의지 알린다

### 英 글래스고 총회 대표단 파견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유치를 2023년(28차)에서 2028년(33차)으로 전환한 정부 정책에 맞춰 전남도가 COP26차 총회가 열리는 영국 글래스고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서 단장으로 한 전남도 대표단은 29일 COP26 참관과 전남도 주최 탄소중립 국제포럼 개최·홍보를 위해 영국으로 출국했다. 전남도는 경남도와 함께 당초 COP28차 총회 유치에 나섰지만 정부가 33차 총회 유치를 방침을 선회하면서 유치 계획을 변경했다.

개최 목표 시기가 늦춰졌으나 국내외 도시 간 유치경쟁은 계속되는 만큼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이번 26차 총회를 활용해 남해안남중권 유치 대표 도시 여수를 늘릴 방침이다.

대표단은 COP26이 열리는 행사 기간 글래스고에

머물며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이클레이)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 ICLEI 대표와도 면담한다. 또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방 탄소 중립 회의에 참석해 전남도의 탄소 저감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제기후환경센터 주관 포럼에서는 그동안 전남도가 추진했던 친환경 정책의 시행과정과 성과 등을 알려 COP33 유치 당위성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기존 유치 조직인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와 협의해 COP33 유치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실천위원회로의 기능 전환도 현지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COP33 유치를 위해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을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지원기관 설립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탄소중립실증 산업단지' 조성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전남도가 나주시에서 추진 중인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를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정 지역은 나주 왕곡면 덕산리, 양산리, 장산리 일원 1.66㎢(1754필지)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에너지 관련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3년이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 총 500㎡, 임야 1천㎡,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나주시장의 토지거래 허가 받는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내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구와 인간의 공존

# 2021 대한민국국향대전

2021. 11. 5.(금) - 11. 21.(일) / 17일간  
함평엑스포공원 일원, 함평읍 시가지 및 주변 관광지

주최 | 함평군

주관 | 함평축제관광재단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화동호회